오성월 스님, 독립유공자 서훈 받을까?

7월 20일 울산 지방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11.17순국선열의날 결과 발표
만해 한용운, 박한영과 함께
일제에 항거해 '임제종' 창단
만세운동·독립군자금 지원도
전통불교수호 선풍 널리 펼쳐





승려독립선언서
대한승려협회 중권 승려 12명의 가명으로 투려진 선언서. 이 독립선언서는 불교의 독립운동 당위성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스님으로는 김구하(金九河) 김경산(金擎山), 오성월(吳惺月), 김상호(金尙昊) 등인데, 이 선언서는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한 승려들의 주도하에 작성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전달되었다.

범어사 제1대 주지 오성월 스님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7월 20일 보훈청에 공식 신청됐다. 오성월 스님은 임제종을 통한 전통불교수호와 만세운동, 독립군자금 지원, 교육계몽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사진 오른쪽은 오성월 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해 펼친 서명운동 '승려독립선언서'.

독립운동과 함께 전통불교수호를 위해 노력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 스님의 공적을 밝히고, 독립유공자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 금정중 김화선 교사는 지난 7월 20일 "울산 지방 보훈청에 오성월 스님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지에 전달했다. 보훈청에 따르면 국내 독립유공자 발표는 3.1절과 8.15 광복절, 그리고 11.17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3차례 진행된다. 8·15광복절 심사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오성월 스님의 독립유공자 심사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발표된다.

김 교사는 "오성월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의 독립운동이 활동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어 답답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하더라도 자료 발굴이 어려워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오성월 스님은 임제종을 이끌며 중앙포교당을 범어사로 옮겼다. 임제종은 1911년 1월 15일 만해 한용운, 박한영 등과 함께 세운 종단이다. 임제종은 1910년 당시 우리나라 유일한 종단이었던 원종(圓宗)이 일본 조동종의 지도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선종 중심의 전통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 1911년 범어사 제1대 주지 였던 오성월 스님은 범어사를 선찰대본산으로 정하고 선풍을 널리 펼치며 부산 동래포교당, 초량포교당 등을 열어 항일 운동을 펼쳤다.

김 교사는 "일본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민중교화 방법으로 불교를 이용하려 했다"며 "스님은 일본의 술책들을 막아냈고, 그 노력은 선의 대중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범어사는 동산 스님을 비롯한 많은 선승들을 배출했다"고 전했다.

불교 전통 수호 뿐 아니라 오성월 스님은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함께 주도했다. 서울 파고다 공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스님은 부산 동래장날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3월 7일 차상명, 김봉환 스님들과 함께 1차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어 3월 18일과 19일 범어사 지방학림 및 명정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친 후 옥고를 겪게 된다. 이뿐 만이 아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후원하며 독립군자금을 마련해 지원했으며 승려독립선언서 서명 운동도 주도했다. 독립선언서에는 불교의 독립운동 당위성을 천명하고, 국내 뿐 아니라 프랑스에도 선언서를 전달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알렸다.

김 교사는 스님의 노력 가운데 '민족계몽 운동과 교육'을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꼽았다. 김 교사는 "스님의 노력으로 범어사는 교육 및 포교를 위한 사회 계몽 활동에 앞장서며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청년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 시대 계몽 운동은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학교 설립 등 교육사업에 집중됐다. 범어사는 승려양성과정인 사교과와 일반 소학교 과정인 사립명정학교를 운영했으며, 각 포교당을 통한 교육도 담당했다. 이밖에도 야학을 통한 무상교육을 실시해 아동 교육에 앞장섰다.

김 교사는 불교계 근대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립운동가 스님들의 활동을 밝혀내 호국 불교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불교계 독립 운동가 발굴을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불교계 근대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스님들의 경우 호적과 이름이 같지 않아 특히나 어려움이 있다. 동광 선사(이근우)도 이종억으로 호적이 돼 있어 같은 분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불교, "광복의 참 뜻 되새기자"

평화 기도회 및 사할린 동포 초청 만찬 등 개최



부산 불교계가 광복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 사진은 작년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진행한 평화 기도회 모습.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념하며 부산불교계가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 평화기도회 등 광복의 참 뜻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평화 기도회'를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백산기념관서 개최한다. 올해 12회를 맞는 평화 기도회에는 불교 뿐 아니라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가한다. 특히 북한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해, 광복을 기뻐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아울러 기도회 장소로 선정된 백산기념관은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제 선생을 기념하는 곳으로 더욱 뜻 깊다.

개회식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회장 정여 스님의 인사말 및 축사 등으로 이어지며, 평화기도회는 기원문 낭독, 광복절 노래, 축하공연, 만세삼창으로 마무리 된다.

회장 정여 스님은 "일제 강점기란 아픈 역사 속에서도 광복을 위해 애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며 "그 정신을 밑거름 삼아 통일조국의 염원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광복절을 맞아 8월 3일 삼광사 약사전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 후손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는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중 하나이며, 공식 환영 자리이다. 행사에는 사할린 청소년 22명과 우리나라 청소년 20명이 참여해 교류의 장으로 열렸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 대표인 무원 스님은 "한인 3·4세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할린 강제징용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과 후손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모 위령재와 여러 행사를 통해 한 민족임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광사는 지난 2015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할린 동포 후손을 위한 역사 기행을 기획했다. 또한 다가오는 8월 27일에는 사할린을 직접 방문하고 추모 위령재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는 부산진구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광복절을 맞아 7월 14일~8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위령재를 위해 대광명사는 순국선열 명단을 일일이 조사하고 1만4000명의 영가를 확보하는 정성도 보였다.

대광명사는 "광복절 뿐 아니라 현충일에도 충혼탑에서 위령재를 봉행하며 호국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빠짐없이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진정한 '쉼' 느끼며 마음 등불 밝혀요"

부산 안국선원, 청소년 마음 등불 프로그램 개최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진행했다.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주지 학산)은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중등부는 7월 29일~31일, 고등부는 8월 5일~7일 진행됐으며 부산 및 경남 중고등부 청소년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이번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나를 찾는 선'이란 주제로, 명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일몰 명상 △묵언 포행△ 마음촛불 나누기 등 명상법과 함께 △공동체놀이 △마인드맵 △컬러테라피-만다라 모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컬러 테라피-만다라 모래'는 청소년들이 모래 만다라를 만드는 것으로, 집중도를 향상시켜 명상에 적응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 학산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명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조금이나마 무상(無常)을 체험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장 강조한 점은 '쉼'이다. 학생들이 안국사서 제대로 쉼을 얻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인성계발프로그램으로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명상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불교의 수행방법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명상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성미 기자

효심밥상 봉사자들, 신중탱화 장엄불사

7월 31일 점안법회



효심 밥상 무료급식소 내에 위치한 효심사에 신중탱화 점안법회가 7월 31일 개최됐다.

효심(孝心)으로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 밥상을 제공하는 '효심 밥상 무료급식소' 봉사자들이 효심사(주지 효문)에 신중탱화로 장엄불사를 진행했다.

효심사는 이를 기념하는 신중탱화 점안 법회를 7월 31일 무료급식소 내 효심사 법당서 봉행했다. 점안 법회에는 봉사자 및 신도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중탱화불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직접 나서 불사를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법당 장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발원이 불사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지 효문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봉사자들의 신심으로 진행됐다"며 "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찾는 어르신들을 보며 자신들이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불사의 이유일 것"이라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불교 서적
명상 음반
신행 용품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고차원 타로카드 리딩법 특강
타로카드 초절정고수를 위한 비밀노하우 플러스
운명과 힐링 시크릿
타로카드 88가지 비밀노하우
고급 리딩비법 타로카드
타로카드의 정석
바이블 타로카드 키워드 개정판
타로카드 황금열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청정한 마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조언과 가르침을 읽어내는 고차원 타로카드 리딩법 특강을 개설합니다.
고차원 타로카드 리딩법을 배워 청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주의 복덕을 받으시길 발원합니다.
강의일자 : 2016년 8월 13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강의장소 : 서울 홍대 전철역 2번 출구 근방(상세약도는 문의 요망)
강 사 : 신영호 (공감북스 타로카드 서적 집필자 / 10년 강의경력)
수 강 료 : 5만원 ※ 수강인원 : 입금 선착순 8명으로 제한
수강문의처 : 플레너터리 포춘 타로 (010-9468-3034)
타로카드 도서구매처 : 공감북스 Tel 02-971-9683, Cell 010-5405-9683, Fax 02-972-9683